

조선시대 승과시험터 공원 ‘변신’

남양주 봉선사 승과원 개원 연꽃축제·음악회로 기념해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한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한 여름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7월 25~26일 승과원(僧科園) 개원을 기념한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승과원 표지석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꽃축제 개막식, 산사음악회 순으로 펼쳐졌다.

이날 문을 연 승과원은 조선시대에 승과를 치루던 봉선사 경내 연못 인근 승가평터를 공원으로 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8000여 평 규모에 연꽃과 야외광장,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연꽃축제 개막식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형성돼(花果同生) ‘발심이 바로 성불(發心即成佛)’임을 강조하는 불교의 교리와



승과원 표지석 제막식.



봉선사 연꽃축제 공연 모습.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며 “연꽃축제를 통해 생활수준 만큼 문화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를 갖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승과가 치러지던 곳을 승과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지역민

들에게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봉선사는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청정도량”이라며 “광릉숲을 간직한 봉선사가 승과원과 함께 더욱 불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 회주 밑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봉선사 본·말사 스님과 주광덕 국회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노승철 남양주 부시장, 공명식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이버 종교평화 우리가 지킨다

대불련, ‘종교평화 모니터요원연수’ 참가

대학생들이 사이버상의 종교 평화 수호를 위한 종교평화모니터요원으로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 이하 대불련)는 8월 1~2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승원)가 주관한 ‘종교평화 모니터요원연수’에 참가했다.

종교평화모니터요원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해블 및 종교편향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관점으로 개신교와 정부,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20여 명의 종교평화모니터요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상에서 공직자 종교편향 등 종교평화감시 활동을 하고 월 1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수 대표의 ‘종교

차별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종교문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 차장의 ‘국가복합화의 실제와 전략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의 ‘종교차별에 대한 사례와 법령 이해’ 등의 강좌와 퀴즈를 통한 종교차별 이해하기, 기도 세러모니 등에 대한 주제토론, 모니터 활동 계획세우기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범불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다양한 종교 편향 사례와 정교분리 위반 사례로 종교평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해 왔다”며 “진 개신교 여론조성을 위한 움직임과 정부 복음화 및 성시화운동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개신교계의 ‘인터넷 요원양성’에 대한 빠른 대처로 불교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732-0239

이상연 기자

“이주민 정착, 제가 도와요”

꿈을이루는사람들, 통번역상담원 현장실습



7월 22일 꿈을이루는사람들이 주최한 이주민 통번역상담원 양성교육을 마친 이주 외국인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 오민)은 7월 21~22일 ‘유쾌·상쾌·소통 이주민 통번역상담원 양성교육’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복한 구미 만들기’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업에서 상담원들은 계명대 국제교육센터와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생활에 맞춘 현장교육을 체험했다.

이번 ‘유쾌·상쾌·소통’ 사업은 이주외국인과 소통을 원하는 시민 및 공공기관에게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영역 개발과 이주민 인

권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자공업 등이 발달한 구미시에는 3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이주여성 왕영(31)씨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통번역사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위해 희생정신을 살려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 복지를 위해 상담센터와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2009 연꽃 어린이 연합캠프’ 성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옥)는 ‘2009 연꽃 어린이 연합 캠프’를 7월 25~27일 충남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성료했다. 7월 25~27일, 7월 27~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캠프에는 1차 250여 명, 2차 150여 명이 참가했다. ‘함께하는 부처님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맨발로 걸어보며 자연을 느껴 보기, 주위의 돌맹이로 친구들과 돌탑 쌓기, 녹차 마시며 마을 가다듬기 등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연합캠프 지도교사인 김진아(회계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씨는 “어린이들이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 법회에서 즐겁게 놀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또다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우리도 부처님 될 거예요”

공주 영평사, 제20회 어린이 숲속학교 열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미래 한국불교 주인공인 106명의 천진불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 힘껏 외친 첫 함성이다.

제20회 어린이 숲속학교(교장 현관)가 충남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에서 7월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박3일 여정에 들어갔다.

어린이 숲속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30여 명이 교사로 참여해 ‘여



영평사 대웅전을 참배하는 천진불들.

래십호(如來十號)’를 반명으로 가르친다. 학교 첫날 부처님께 인사하기, 찬불가 율동 배우기, 사찰예법 배

우기, 답력훈련 등이 진행됐으며 이튿날 호불명상, 기체조, 불교공부, 마지막 날 5계설법 수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21년 동안 숲속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때는 200여 명이 넘게 참석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참여 숫자가 줄어 안타깝다”며 “좀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을 불국토로

경주시 2052년까지 1219억 들여 남산 정비

경주시가 ‘노천 박물관’ 남산에 산재해 있는 불상과 탑 등 신라불교 유적을 정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극된 남산을 불국토로 재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재 탐방로 및 유적지를 정비하고 창립사지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 남산

신성(南山新城) 복원을 위한 시·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경주시가 지난 1998년부터 2052년까지 총 사업비 1219억40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남산종합정비 사업은 5만6198㎡ 규모의 주차장 21개소를 조성하고, 유적지 291개소와 탐방로 19개 노선 56km,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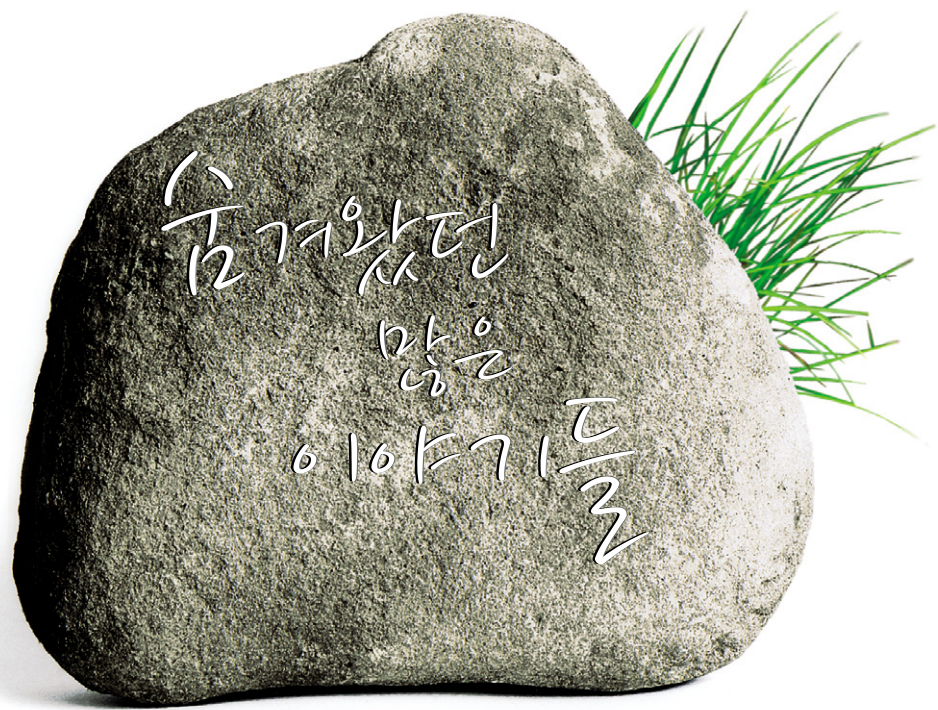
판 및 이정표 179개소를 정비한다.

페탑과 폐사지 및 유적정비를 위해 149개 지구 118만㎡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서남산 주차장 인근 2314㎡의 부지에 2층 규모의 전시관 1동을 건립키로 하는 등 경주남산에 산재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신라인의 지혜와 숨결을 체감하는 탐방코스 개발에 나가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도서출판 國美카르마

삼중큰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에서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큰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곳을 일운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큰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박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맛보지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복한 삶의 빛을 다 갖고 떠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삼중큰스님 지 | 신국판 변형 335쪽 12,000원 |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구입신청 051)583-9923-5 |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원)